

고립 유아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의 효과

김미영 김광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가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집단이득에의 기여는 또래집단 구성원들의 호의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또래들로 하여금 고립유아에게 접근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도록 하는 중재 방법은 또래관계의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 집단기여와 또래중재는 고립 유아들의 또래 수용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ii) 변화된 또래 수용은 장기간 유지되는 일반화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S 어린이집 두 학급이 실험집단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집단기여와 또래중재 두 실험변수와 반복측정 변수 등 3 요인설계에 대한 3원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단기여와 또래중재는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관찰시기 간의 일반화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집단기여 • 또래중재 • 또래 수용 • 집단강화 • 또래관계

유아기의 또래관계와 상호작용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는 물론, 인지 및 언어발달, 신체적 발달 등 모든 발달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uralnick, 1993). 특히 학령 전기에는 아동 스스로 외부 세상을 탐험하는 시기로서 친구와 이웃을 만나게 되면서 여럿이 어울리는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김광웅과 방은령, 1992).

일부 연구들(Parker & Asher, 1987; Strain & Kohler, 1991; Guralnick,

1993)에 의하면, 또래들과 효율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유아기 발달에 결정적인 초석이 되며, 의사소통 기술, 언어 습득, 인지 및 성격과 사회적 발달의 향상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발달 초기에 확립된 사회적 경험 및 행동은 아동기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 뿐 만 아니라 후기 성인기의 적응에 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또래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위축된 고립아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실패함으로써 또래들로부터의 수용이 낮아져, 학교생활의 부적응(Ladd, 1990)은 물론, 낮은 학업성취, 청소년 비행, 알코올 중독(Hartup, 1978; Strayhorn & Strain, 1986)의 문제를 일으키며, 성인이 된 후에는 정신질환으로 발전(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고립유아들은 또래집단의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실패한다. 결국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고립유아들을 돕기 위하여 집단강화(Bryan, 1975; LeFebvue & Strain, 1989; Kohler, Strain, Maretsky, & DeCesare, 1990)와 또래중재(Strain, 1984; Strain & Odom, 1986; Sacks & Gaylord-Ross, 1989)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집단강화와 또래중재는 고립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호의적 태도와 수용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관한 일반화 효과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중재는 효과적이었지만, 일반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Stockes & Osnes, 1986; Haring, Roger, Lee, Breen, & Gaylord-Ross, 1987; Strain & Kohler, 1991)이 있는 반면,

일반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Sasso & Rude, 1987)도 있다.

학습이나 놀이 중 고립유아 자신이 얻은 성공을 집단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도록 하는 집단기여 전략은 또래들의 호의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또래들로 하여금 고립유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또래중재 방법은 고립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유아집단에서 또래는 강력한 사회적 강화자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적강화와 연관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는 호의적 감정을 형성함으로써 또래 수용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가정에 근거하여,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고, 또 그 일반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실험설계

이 연구에서는 또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의 효과 및 일반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및 추후의 반복측정(C)에 의한 $2(\text{집단기여}) \times 2(\text{또래중재}) \times 3(\text{반복측정})$ 요인설계가 활용되었다.

2. 실험집단 선정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S 어린이집의 2개 학급이 실험집단으로 선정되었다. 그

리고, 각 학급 별로 가장 낮은 사회측정 점수(5점 평정척도)를 얻은 남아 2명과 여아 2명 씩 총 8명이 고립유아로 선정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들은 모두 또래중재자로 활용되었다.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Asher, Singleton, Tinsley, 그리고 Hymel(1979)의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측정 검사를 변용하여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사회측정 검사는, 아주 좋아한다(5점), 좋아한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싫어한다(2점), 그리고 아주 싫어한다(1점) 등 5점 척도상에서 각 아동이 피평정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주 좋아한다”는 활짝 웃는 얼굴로, “보통이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리고 “아주 싫어한다”는 성난 얼굴로 표현하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는 동물 그림 5 화면을 포함해서 집단 내 모든 아동의 개인 사진을 컴퓨터 슬라이드로 각각 한 장씩 제시하면서 아동의 반응을 관찰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실험절차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기초선 검사를 포함하여 1999년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2000년 1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실험처치에 있어서, 집단기여는 주2회씩 총 5회기를 실시되었으며, 또래중재는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반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처치 종료 4주 후에 추후검사가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처치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조건은 집단기여로서, “숨은 스티커 찾기(1, 3회기)”, “만화 캐릭터 완성하기(2, 5회기)”, 그리고 “돌아가는 공(4회기)” 등으로 구성하여 총 5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집단기여는, 고립유아로 하여금 어떤 활동 중 집단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 행동에 따라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정적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실험조건은 또래중재이다. 매 실험 회기마다 각 학급에서 2명씩 또래중재자가 추가로 선정되며, 이들은 자유놀이 시간 중 고립유아 2명에게 접근하여 상호작용하도록 요구되었다. 실험회기 중 또래중재가 고립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발견되면, 교사는 또래 중재자에게 다가가 토오권을 주어 보상한다. 그리고, 처치가 끝난 후 원하는 스티커 모음장과 교환하여 주었다.

5. 자료분석

고립유아들의 또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 그리고 관찰시기 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요인 설계에 대한 F 검증이 실시되었다. 반복측정에 의한 3원 변량분석에 있어서는, SPSSWIN v. 7.5의 GLM Repeated measures와 콕호완(1992)의 KWAKSTAT v. 4.09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가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및 추후에 반복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분석 제시되었다.

1. 집단기여(A), 또래중재(B) 및 관찰시기(C)의 주효과 분석집단기여와 또래중재 여부에 따른 관찰시기 별 또래 수용도의 변화에 대한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먼저 집단기여 유(a₁)와 무(a₂) 집단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3.77과 3.29로서, 집단기여 유(a₁)가 집단기여 무(a₂)보다 .4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반복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3원 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는 $F(1,29)=7.50$ 일 때 $p < .025$ 로서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집단기여는 집단 내에서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와 관찰시기 ($A \times B \times C$)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집단기여(A)의 효과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단순 주효과 분석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표 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또래중재 유(b₁)와 또래중재 무(b₂) 조건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3.77과 3.28로서 또래중재 유(b₁) 조건

표 1.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 유무에 따른 관찰시기(C)별 또래 수용도의 변화에 대한 통계치

집단기여(A)	또래중재(B)	통계치	관 찰 시 기 (C)			계
			사전(c1)	사후(c2)	추후(c3)	
유 (a1)	유(b1)	n	30	30	30	90
		M	2.90	4.43	4.43	3.92
		SD	1.65	.97	.73	1.38
	무(b2)	n	30	30	30	90
		M	2.60	4.13	4.10	3.61
		SD	1.61	1.01	1.24	1.48
	소 계	n	60	60	60	180
		M	2.75	4.28	4.27	3.77
		SD	1.62	.99	1.02	1.43
무 (a2)	유(b1)	n	30	30	30	90
		M	2.43	4.27	4.17	3.62
		SD	1.59	.98	1.02	1.48
	무(b2)	n	30	30	30	90
		M	2.63	2.90	3.33	2.96
		SD	1.67	1.42	1.58	1.57
	소 계	n	60	60	60	180
		M	2.53	3.58	3.75	3.29
		SD	1.62	1.39	1.39	1.56
계		n	120	120	120	360
		M	2.64	3.93	4.01	3.53
		SD	1.62	1.26	1.24	1.51

은 또래중재 무(b_2) 보다 .49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2>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F(1,29)=11.88$ 일 때 $p<.01$ 로서 통계적으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는 집단 내에서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표 2>의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또래중재와 관찰시기 ($B \times C$) 간에, 그리고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와 관찰시기 ($A \times B \times C$)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므로 또래중재의 효과에 관한 보다 세밀한 단순 주효과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사전, 사후, 그리고 추후에 관찰된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2.64, 3.93, 4.01로서, 사후와 추후의 결과는 사전보다 각각 1.29와 1.37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표 2>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F(2,58)=41.16$ 일 때 $p<.001$ 로서 통계적으로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에 의하여 증가된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는 실험처치가 중단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유지되는 일반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2.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 여부 및 관찰시기(C)에 따라 반복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3원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SS	df	MS	F	p
<u>주효과</u>					
집단기여 (A)	20.54	1	20.54	7.50	<.025
오차(AS)	79.46	29	2.74		
또래중재 (B)	21.51	1	21.51	11.88	<.01
오차(BS)	52.49	29	1.81		
관찰시기 (C)	141.67	2	70.84	41.16	<.001
오차(CS)	99.83	58	1.72		
<u>2원 상호작용</u>					
A×B	2.84	1	2.84	1.56	NS
오차(ABS)	52.82	29	1.82		
A×C	3.57	2	1.79	1.60	NS
오차(ACS)	64.93	58	1.12		
B×C	9.61	2	4.80	3.62	<.05
오차(BCS)	76.89	58	1.33		
<u>3원 상호작용</u>					
A×B×C	9.44	2	4.72	3.45	<.05
오차(ABCS)	79.39	58	1.37		
Total	823.72	359			

2. 또래중재와 관찰시기(B×C)간의 단순 주효과의 분석

〈표 3〉은 또래중재(B)와 관찰시기(C)에 따른 또래 수용도의 측정결과가 제시된 것이고, 〈그림 1〉은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또래중재와 관찰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또래중재 유(b₁)와 또래중재 무(b₂) 간의 평균치의 차이는 관찰시기(c₁, c₂, c₃)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또래중재는 사전 관찰보다 사후 및 추후관찰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관찰시기(c₁, c₂, c₃) 간의 차이도 또래중재 유무(b₁, b₂) 조건에 따라 그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3. 또래중재(B)와 관찰시기(C)에 따른 또래수용도의 측정 결과

또래 중재 (B)	통계치	관찰시기(C)			계
		사전 (c ₁)	사후 (c ₂)	추후 (c ₃)	
유 (b ₁)	n	30	30	30	30
	Mean	2.67	4.35	4.30	3.77
	SD	2.52	1.44	1.43	3.73
무 (b ₂)	n	30	30	30	30
	Mean	2.62	3.52	3.72	3.28
	SD	2.24	1.90	2.05	4.41
계	n	30	30	30	30
	Mean	2.64	3.93	4.01	3.53
	SD	4.12	2.41	2.46	6.71

〈그림 1〉의 첫째 그림을 보면, 사전관찰(c₁)에서 또래중재 유(b₁)와 무(b₂) 조건에서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사후관찰(c₂)에서는 또래중재 유(b₁) 조건에서의 평균치는 4.35점으로 또래중재 무(b₂)에서의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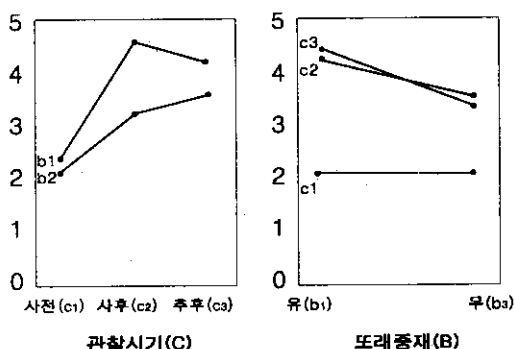


그림 1.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또래중재(B)와 관찰시기(C)간의 상호작용 효과

3.52점보다 .8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관찰에서는 또래중재를 받은 고립유아나 그렇지 못한 유아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낮은 수준의 또래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후와 추후관찰에서는 또래중재를 받은 고립유아들의 또래 수용도가 또래중재를 받지 않은 유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그림 1〉의 둘째 그림을 보면, 또래중재 유(b₁) 조건에서 사전관찰(c₁)의 평균치는 2.67점으로 낮다. 그러나, 사후와 추후관찰(c₂, c₃)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4.35와 4.30점으로 사전관찰(c₁)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중재 무(b₂) 조건에서도, 사전관찰(c₁)의 평균치는 2.62점으로 낮으나, 사후와 추후관찰(c₂, c₃)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3.52와 3.72점으로 사전관찰(c₁) 점수보다 각각 .90점과 1.10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 유(b₁) 조건에서는 사전보다 사후와 추후관찰에서 또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또래중재 무(b₂) 조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관찰시기 간에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3. 집단기여, 또래중재, 관찰시기(A×B×C)간의 3원 상호작용 분석

집단기여와 또래중재(A×B)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시기(C) 별로 본 단순 상호작용 효과는 사후관찰(c₂)에서만 통계적으로 .02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기여와 관찰시기 (A×C) 간의 상호작용을 또래중재 여부별로 본 단순 상호작용 효과는 또래중재 무(b₂) 조건에서만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집단기여와 관찰시기 (B×C) 간의 상호작용을 집단기여 여부별로 본 단순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기여 유(a₁) 조건에서만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관찰에서 집단기여와 또래중재(A×B) 간의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이다. <표 4>는 사후관찰에서의 집단기여와 또래중재 여부에 따른 또래 수용도의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2>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표 4>와 <그림 2>의 첫째 그림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또래중재 유(b₁) 조건에서 고립유아들에 대하여 집단 내 또래 아동들이 보인 사회측정 반응은 집단기여 유(a₁)와 무(a₂) 조건에서 각각 4.43점과 4.27점으로서, 집단기여 유(a₁)가 집단기여 무(a₂)보다 .16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가 활용된 경우에는 집단기여와 상관없이 높은 또래 수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래중재가 활

표 4. 사후관찰(c₂)에서의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여부에 따른 또래 수용도의 통계치

집단기여(A)	통계치	또래중재(B)		계
		유(b ₁)	무(b ₂)	
유(a ₁)	n	30	30	30
	Mean	4.43	4.13	4.28
	SD	.97	1.01	1.36
무(a ₂)	n	30	30	30
	Mean	4.27	2.90	3.58
	SD	.98	1.42	1.44
계	n	30	30	30
	Mean	4.35	3.52	3.93
	SD	1.44	1.90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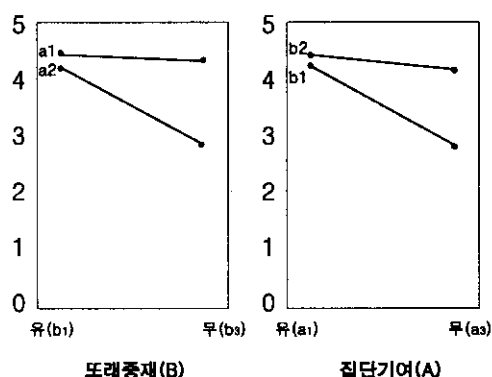


그림 2.

사후관찰(c₂)에서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간의 상호작용 효과

용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에는 집단기여를 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또래 수용도가 월등히 높았음을 보여 준다.

<그림 2>의 둘째 그림에서는, 집단기여 유(a₁)에서 보인 또래 아동들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또래중재 유(b₁)와 무(b₂)에서 각각 4.43점과 4.13점으로서 또래중재 유(b₁) 집단이 .30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기여가 적용된 고립유아의 경우에는 또래중재와 상관없이

높은 또래 수용도를 보인 반면 집단기여가 적용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에는 또래중재를 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또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중재 무(b_2) 집단에서 집단기여와 관찰시기 ($A \times C$)간의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는 또래중재 무(b_2)에서의 집단기여 여부와 관찰시기 별로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3>은 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도시한 것이다.

<표 5>와 <그림 3>의 첫째 그림을 보면, 사전관찰(c_1)에서 집단기여 유(a_1)와 무(a_2) 조건에서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2.60과 2.63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관찰(c_2)에서는 집단기여 유(a_1)의 평균치는 4.13점으로서 집단기여 무(a_2) 조건의 평균치 2.90점보다 1.23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후관찰(c_3)에서도 집단기여 유(a_1) 조건의 평균치는 4.10점으로 집단기여 무(a_2)의 평균치 3.33점보다 .77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기여가 활용된 경우에는 사전보다 사후 및 추후관찰에서 더 높은 또래 수용도를 보이며, 집단기여가 활용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에는 관찰시기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와 <그림 3>의 둘째 그림을 보면, 집단기여 유(a_1) 조건에서 사전관찰(c_1)의 평균치는 2.60점으로 낮으나, 사후와 추후관찰(c_2, c_3)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4.13과 4.10점으로서 사전관찰(c_1) 점수보다 각각 1.53, 1.50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기여 유(a_1) 조건에서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에

표 5. 또래중재 무(b_2)에서의 집단기여(A) 여부와 관찰시기(C) 별로 측정된 또래 수용도

집단기여(A)	통계치	관찰시기(C)			계
		사전(c_1)	사후(c_2)	추후(c_3)	
유(a_1)	n	30	30	30	90
	Mean	2.60	4.13	4.10	3.61
	SD	1.61	1.01	1.24	1.48
무(a_2)	n	30	30	30	90
	Mean	2.63	2.90	3.33	2.96
	SD	1.67	1.42	1.58	1.57
계	n	60	60	60	180
	Mean	2.62	3.52	3.72	3.28
	SD	1.63	1.37	1.46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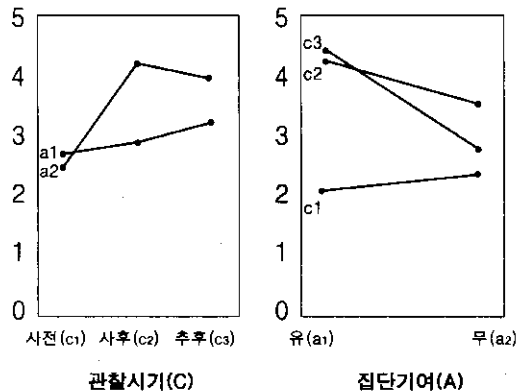


그림 3. 또래중재 무(b_2)에서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집단기여(A)와 관찰시기(C)간의 상호작용 효과

의하여 증가된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는 일반화되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기여 무(a_2) 조건에서는 사전, 사후 및 추후 관찰(c_1, c_2, c_3)된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2.63점, 2.90점, 3.33점으로 서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기여 무(a_2) 조건에서는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의 일반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기여 무(a_2)에서의 또래중재와 관찰시기(B×C) 간의 단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은 집단기여 무(a_2)에서의 또래중재(B) 유무 및 관찰시기(C) 별로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통계치가 제시된 것이며, <그림 4>는 그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집단기여 무(a_2)에서의 또래중재(B) 유무 및 관찰시기(C) 별로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통계치

또래 중재 (B)	통계치	관찰시기(C)			계
		사전 (c1)	사후 (c2)	추후 (c3)	
유(b1)	n	30	30	30	90
	Mean	2.43	4.27	4.17	3.62
	SD	1.59	.98	1.02	1.48
무(b2)	n	30	30	30	90
	Mean	2.63	2.90	3.33	2.96
	SD	1.67	1.42	1.58	1.57
계	n	60	60	60	180
	Mean	2.53	3.58	3.75	3.29
	SD	1.62	1.39	1.39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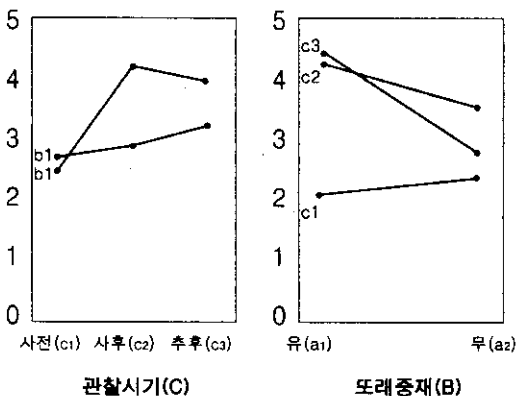


그림 4. 집단기여 무(a_2)에서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또래중재(B)와 관찰시기(C)간의 상호작용 효과

<표 6>과 <그림 4>의 첫째 그림을 보면, 사전관찰(c_1)에서 또래중재 유(b_1) 조건과 무(b_2) 조건에서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2.43과 2.63점으로 .20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관찰(c_2)에서는 또래중재 유(b_1) 조건의 평균치는 4.27점으로서 또래중재 무(b_2) 조건의 평균치 2.90점보다 1.37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관찰(c_3)에서도 또래중재 유(b_1) 조건의 평균치는 4.17점으로 또래중재 무(b_2)의 평균치 3.33점보다 .84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 유(b_1) 조건에서는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그림 4>의 둘째 그림을 보면, 또래중재 유(b_1) 조건에서 사전관찰(c_1)의 평균치는 2.43점으로 낮으나, 사후(c_2)와 추후관찰(c_3)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는 각각 4.27과 4.17점으로 사전관찰(c_1) 점수보다 각각 1.84점, 1.74점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 유(b_1) 조건에서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에 대한 일반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중재 무(b_2) 조건에서는 사전관찰(c_1)의 평균치 2.63점과 사후와 추후관찰(c_2, c_3)의 또래 수용도의 평균치 각각 2.90과 3.33점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중재 무(b_2) 조건에서는 고립유아에 대한 또래 수용도에 대한 일반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장에서는, 또래집단 내에서 고립유아들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변수로 활용된 집단기여(A)와 또래중재(B)는 고립유아들의 또래 수용도를 높이는데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실험 직후에 관찰된 결과가 1개월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일반화 효과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Kohler와 Fowler(1985), 그리고 McEvoy와 Odom(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 집단기여의 효과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도에 미치는 집단기여의 주효과는 사후와 추후관찰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유아의 행동에 따라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집단강화의 방법이 집단 구성원 각자로부터 호의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기여는 집단 내에서 또래들의 또래 수용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추후관찰에서도 높은 또래 수용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단기여의 효과가 시간을 넘어서 계속 유지되는 일반화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효과는 Strain, Cooke, Apolloni(1976), Greenwood와 Hops(198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집단기여만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또래중재의 중복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기여, 또래중재, 관찰시기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 또래중재의 효과

또래중재의 주효과에 있어서도 또래 수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중재자로서 활동한 유아들이 고립유아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또래중재 처치를 받지 않은 조건에서도 또래 수용도가 의의있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기여의 효과가 잔류하여 중복적으로 나타난 효과로 추정된다.

또한 또래중재 조건에서는 사후에 유의하게 향상된 또래 수용도가 1개월 후의 추후관찰에서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중재에 의하여 향상된 또래 수용도는 높은 일반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실험처치 상황에서 형성된 호의적 태도가 실생활에 전이되는 것을 일반화 효과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곧 또래들의 실생활 집단이기 때문에 전이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 상호작용 효과

첫째, 집단기여와 또래중재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전과 추후관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후관찰에서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과 추후관찰에서 측정된 또래 수용도의 변화는 주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후관찰의 결과에 있어서는 또래중재 유무에 따라 집단기여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또래중재 조건에서는 집단기여 유무에 상관없이 높은 또래 수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또래중재가 적용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집단기여의 효과는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집단기여 무조건에서는 또래 수용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래중재 처치를 받은 집단은 이미 높은 수준의 또래 수용도를 유지하고 있어 집단기여의 효과가 더 이상 향상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또래중재 처치를 받지 않은 조건에서는 이러한 사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집단기여 효과가 의의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또래중재의 효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또래중재의 효과는 집단기여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와는 반대로 집단기여 처치를 받은 집단은 이미 높은 수준의 또래 수용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래중재의 효과가 더 이상 첨가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전 효과가 없었던 통제집단에서만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집단기여와 관찰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또래중재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기여의 효과는 사전과 사후, 사전과 추후관찰 간에 각각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단기여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관찰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기여가 집단 내에서 또래 수용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학습전이와 일반화의 전략으로 그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또래중재와 관찰시기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기여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중재는 관찰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중재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관찰시기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래중재는 집단 내에서 또래 수용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학습전이와 일반화의 효과도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후속 연구자와 현장 유아지도 전문가를 위하여 제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기여와 또래중재가 고립유아의 또래 수용도의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집단기여와 또래중재의 기법을 활용한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유아의 사회성 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고립된 유아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유아 초기부터 성격이나 행동의 특이성, 혹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척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높은 유아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도함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의 결합으로 인하여 집단 내에서 배척되고 고립되는 유아들을 위하여 사회적 행동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고립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 방은령(1992). 아동발달. 서울: 형설출판사.
-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43-444.
- Bryan, J. H. (1975). Children'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In 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 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Guralnick, M. J. (1993).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Children's Peer Relation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p. 344-372.
- Haring, T., Roger, B., Lee, M., Breen, C., & Gaylord-Ross, R. (1987). Teaching social language to moderately handicapped student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9, 159-171.
- Hartup, W. W. (1978). Peer interaction and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In M. J. Guralnick (Ed.), *Early intervention and the integration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pp. 27-51).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ohler, F. W., Strain, P. S., Maretsky, S., & DeCesare, L. (1990). Promoting Positive and Supportive Interactions Between Preschoolers: An Analysis of Group-Oriented Contingenci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Vol. 14, No. 4, 327-341.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LeFebvre, D., & Strain, P. S. (1989). Effects of a group contingency on the frequency of social interactions among autistic and non 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Making LRE efficaciou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3, 329-341.
- McEvoy, M. A., & Odom, S. L. (1987). Social interaction training for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12, 242-251.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Sacks, S., & Gaylord-Ross, R. (1989). Peer-mediated and teacher-directed social skills training for visually impaired students. *Behavior Therapy*, 29, 619-638.
- Sasso, G. M., & Rude, H. A. (1987). Unprogrammed effects of training high status peers to interact with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0, 35-44.
- Stockes, T. F., & Osnes, P. G. (1986). Generalizing children's social behavior. In P. S. Strain, M. J. Guralnick, & H. M. Walker (Eds.), *Children's social behavior: Development, assessment, and modification*(pp. 407-443). Orlando, FL: Academic Press.
- Strain, P. S. (1984). Social behavior patterns of nonhandicapped and developmentally disabled friend pairs in mainstream preschools. *Analysis and Intervention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 15-28.
- Strain, P. S., & Kohler, F. W. (1991). *Programmatic Research on Social Interaction Maintenance and Generalization with Severely Handicapped Preschoolers*. Allegheny-Singer Research Institute, Pittsburgh, PA.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 Strain, P. S., & Odom, S. L. (1986). Peer social initiatives: Effective interventions for social skill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52, 543-552.
- Strayhorn, J. M., & Strain, P. S. (1986). Social and language skills for preventative mental health: What, how, who, and when. In P. S. Strain, M. J. Guralnick, & H. M. Walker (Eds.), *Children's social behavior: Development, assessment, and modification*(pp. 287-330). Orlando, FL: Academic Press.

The effects of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on peer acceptance of isolated young children

Mi-Young Kim Kwang-Woong Kim

Sookmyung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on peer acceptance of isolated young childre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to pur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1) Will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increase peer acceptance of isolated children? (2) Will the change in peer acceptance of isolated children be maintained across time?

A 2 (group contribution conditions) $\times$ 2 (peer intervention conditions) $\times$ 3 (intervention phases) factorial design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all factors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design. Two experimental groups (each group consisted of four isolate subjects and remained peer subjects) were selected and repeatedly assigned to the four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peer acceptance scores were measured using the peer-rating sociometric scale three times, i.e. pre, post, and follow-up periods. The experiment lasted for two month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1)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had the significant effects (main effects) on peer acceptance of isolated children. There were, however,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peer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phases ($B \times C$), and among the group contribution, peer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phases ($A \times B \times C$). (2)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increase peer acceptance of isolated young children more at the post and follow-up phase than at the pre phase. This fact implies that group contribution and peer intervention have the effects of generalization on peer acceptance of isolated young children.

Key words: group contribution • peer-mediated intervention •
peer acceptance • group reinforcement • peer relationship